

KSOC AGENDA 2020

KSOC AGENDA 2020!
창립 100주년(2020년)을 맞은 대한체육회(KSOC)가,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선정한
주요 아젠다입니다.

이제는 스포츠 복지국가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스포츠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쳐왔습니다. 2004아테네올림픽으로부터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 4회 연속 하계올림픽 TOP 10 이내의 성적을 거두었고, 1988서울올림픽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까지 동·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여덟 번째 국가입니다.

네 차례의 아시아경기대회와 2002한일월드컵 축구대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했으며, 우리는 태극전사들이 불굴의 투혼을 펼칠 때마다 함께 응원하며 부둥켜안고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밤잠 설친 피로도, 일상의 시름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기쁨과 감동을 얻고, 다시 뛰자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체육의 양극화, 체육인 일자리 부족 등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계는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적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문선수 수는 점점 줄어들고, 기초종목에 있어서 우리의 국제경쟁력은 계속 뒤처지고 있습니다. 비인기종목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운동 안 하는 학생’과 ‘공부 안 하는 선수’로 양극화되어 왔습니다.

통합 ‘대한체육회’가 출범했지만 체육시설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고, 생활체육은 국민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외 계층들에게는 스포츠복지를 강화해야 하며, 100세 시대에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 보급해야 합니다. 연간 1만 명의 체육관련학과 졸업생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체육계 종사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처우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건강한 스포츠생태계를 갖춰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제는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스포츠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건강한 스포츠생태계를 갖추는 데서 출발합니다. 학교체육이 생활체육의 기반이 되고, 풍요로운 생활체육의 터 전 위에서 전문선수가 배출되고, 은퇴선수들이 학교체육·생활체육 현장에서 지도활동을 펼치는 선순환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스포츠활동이 학생들에게는 전인교육이 되고, 선수들에게는 인생진로의 외길이 아닌 선택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스포츠는 국민들에게 기본권이 되어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품격있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 선진국이자, 스포츠 복지국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0%를 대한체육회에 정률 배분해야 합니다

스포츠선진국으로 가려면 제도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을 시군구별로 하나씩 만들어야 합니다. 해체되는 학교운동부 대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을 정착시켜야 하며, 체육지도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지도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체육증가' 대한체육회의 숙제입니다. 현재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방법으로는 산적한 숙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주어진 개별 사업을 단순 관리하기에 급급한 체육재정으로는 체육시스템을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과감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기금 편입 전에 '체육증가' 대한체육회에 확대(30%→50%) 정률 배분하고, 재정 자립하는 것이 방안입니다.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재정자립은 스포츠선진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조건입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정부로부터 체육정책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독자적인 예산편성·집행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체육단체가 자율적·창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스포츠선진국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정치적·경제적인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IOC 올림픽현장에 명시된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책무이며, 제19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방법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을 위함입니다. 전문체육과 학교체육·생활체육이 제자리를 찾고, 체육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체감복지를 향상시켜 국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체육계의 미래 100년이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100년 전통의 대한체육회가 모든 역량을 모아 선도하고자 합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복지시대 구현을 위해 체육인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줄 것을 기대합니다.

**체육단체의 재정자립!
체육인에 의한 자율행정!
체육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해법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의 특례를 신설해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개정안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

--- 제27조에 따른 환급금 및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대한체육회에 배분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방법 왜 바꿔야 합니까?



1. 대한체육회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 올림픽헌장(제27조제6항)은 NOC의 정치적·경제적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 KSOC는 매년 예산편성·집행과정에서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 ▶ KSOC가 정부예산에 의존하면 'NOC 자율성 침해' 논란은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보조금은 정부 관여가 불가피합니다.

법률을 개정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이 기금에 편입되기 전에 배분해야 합니다.

2. 현행 예산수준으로는 체육시스템을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 ▶ 체육계의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려면 대한체육회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 ▶ 100년 전통의 체육종가 대한체육회는 매년 주어진 개별사업 단순관리에 급급합니다.
- ▶ 국민 스포츠기본권 강화, 체육시스템 선진화, 일자리 창출 등 할 일이 많습니다.

대한체육회 예산('17년)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30% 수준입니다.

법률을 개정해서 50%로 확대 배분해야 합니다.

3.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대한체육회의 재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 (1989년)	총 352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체육회가 승계해야 할 88서울올림픽 수익금(3110억)• 대한체육회(산하 '국민체육진흥재단') 보유금(411억)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역사적으로 그 주인인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시도체육회에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대한체육회, 2040년엔 완전 자립합니다!



◆ 50% 정률배분을 기반으로 수익사업 추진

◆ 11년차부터 연차적으로 배분비율 축소

구 분	'19~'28년	'29년	'31년	'33년	'35년	'37년	'40년
배분율	50%	45%	40%	35%	30%	25%	배분없음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단계별 배분방법



구분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연 차	~'18년	'19년~'28년	'29년~'39년	'40년~
수익금 배분	기금	기금 편입 전(재정 외 관리)		배분없음
비 율	약 30%	50%	연차별 축소 (45%~25%)	완전 자립

대한체육회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이렇게 사용합니다!



◆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스포츠 기본권 확립'

- ▶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여 평생체육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 ▶ 소외계층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으로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 ▶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여 스포츠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스포츠 경쟁력 강화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

- ▶ 단계별 우수선수를 육성하여 우리나라 스포츠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 ▶ 스포츠대회를 활성화하여 경기력을 높이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 ▶ 국제 스포츠협력을 강화하여 스포츠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 학교체육 활성화 '건강한 스포츠생태계 구축'

- ▶ 청소년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 ▶ 학교체육을 제도적으로 관리하여 전인교육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 ▶ 운동을 즐기는 가운데 전문선수가 배출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체육계 일자리 확대 '국가 경제에 기여'

- ▶ 체육지도자들을 확대 배치하여 국민들의 스포츠 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 ▶ 체육인들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 스포츠마케팅과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여 체육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 대한체육회 재정자립을 위한 기반사업

- ▶ 대한체육회 자산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 스포츠마케팅 자회사 설립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 ▶ 생활체육 등록동호인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회원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스포츠강국을 뛰어넘어 스포츠선진국으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방법 개선은
체육인들의 희망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방법을 개선하여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